

COMPARE · 견적 비교

같은 32평인데 견적이 3천만 원 차이 나는 이유

가격표가 숨긴 3천만 원의 진실

같은 32평, 같은 단지인데 어떤 집은 4천만 원대에, 어떤 집은 7천만 원대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가격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견적서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같은 평수, 왜 견적은 3천만 원씩 벌어질까

인테리어 상담을 몇 군데 받아본 분들은 한 번쯤 당황합니다. 똑같은 **대전 32평 인테리어**인데 업체마다 부르는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견적 차이의 대부분은 '무엇을, 어느 등급으로, 어디까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전체 철거를 하느냐 부분만 손보느냐, 자재를 기본형으로 쓰느냐 고급형으로 쓰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액만 나란히 놓고 무턱대고 '싼 곳'을 고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촘촘한 견적서와 뭉뚱그린 견적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처음의 차액은 대개 계약 후 추가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3천만 원의 차이는 대개 '바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사 범위와 자재를 같은 한 장의 종이 위에 올려놓은 데서 생기는 착시인 셈입니다.

견적서에서 슬쩍 빠지는 추가비용

저렴해 보이는 견적서일수록, 나중에 반드시 필요해지는 항목이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착공 뒤 '추가금'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붙습니다. **대전 인테리어 비용**을 비교할 때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견적서 · 항목 구성 참고용(실제 고객 견적 아님)

자주 빠지는 항목	왜 필요한가	예상 추가 범위
철거·폐기물 반출	구축일수록 물량·반출비 증가	약 150만~400만원
설비·전기 증설	콘센트·조명·배선 추가 작업	약 100만~300만원
방수·미장 보강	욕실·베란다 누수 예방	약 80만~250만원
문·몰딩·걸레받이 교체	'도배만' 견적엔 빠지기 쉬움	약 150만~500만원
입주청소·폐자재 정리	마감 후 별도 청구되는 경우	약 30만~80만원
관리실 예치·행위허가	엘리베이터 보양·동의 절차	약 20만~100만원



이 항목들만 더해도 수백만 원이 움직입니다. 처음 견적이 낮았던 이유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빼놓아서'였다면, 최종 정산에서 두 견적의 차이는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는 총액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재 등급 한 끼이 만드는 금액차

같은 '주방', 같은 '바닥'이라도 자재 등급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바닥재는 장판에서 강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로 갈수록, 주방 상판은 PET에서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으로 갈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견적서에 '바닥재 일체'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어떤 제조사와 등급을 가정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 등급별 예상 단가 비교 · 참고용(현장·시세에 따라 변동)

공정	기본형	중급형	고급형
바닥재(평당)	약 8만~12만원	약 13만~20만원	약 22만~35만원
주방 상판·도어	약 150만~300만원	약 300만~550만원	약 600만원 이상
욕실 타일·도기	약 150만~250만원	약 250만~400만원	약 450만원 이상
창호·발코니 확장	약 200만~400만원	약 400만~700만원	약 700만원 이상

32평 전체로 환산하면 등급 선택만으로 **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고급'이 아니라 배분입니다. 손이 자주 닿고 오래 쓰는 곳(주방 상판·현관 바닥)은 등급을 올리고, 눈에 덜 띄거나 교체가 쉬운 곳은 합리적으로 낮추면 같은 예산에서도 체감 만족도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무아 시공 사례 · 강변

저가 견적의 함정, 이렇게 되돌아온다

가장 낮은 견적이 결국 가장 비싼 공사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가 견적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그 결과 어떤 청구가 되돌아오는지 유형별로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계약하기보다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누락형: 철거·설비·문짝 등을 빼고 총액만 낮게 보여준 뒤, 착공 후 '이건 별도'라며 추가금 청구
- 등급 다운형: 견적서에 자재명을 적지 않고 최저가 자재로 시공, 업그레이드는 전부 추가 비용
- 인건비 압축형: 여러 공정을 몰아 빠르게 끝내며 마감·양생 시간을 줄여 하자 위험이 커지는 경우
- A/S 공백형: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범위가 없어 완공 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구두 약속형: '그건 해드릴게요'가 견적서에 적히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근거가 남지 않음

참고 · 여기서 안내한 모든 금액은 예시 범위이며, 지역·평형·자재 등급·현장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현장 실측 견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둔산동에서 견적 3장을 비교한다면

둔산동 아파트 리모델링은 대전에서도 세대수가 많고 평형·구조가 비슷한 단지가 몰려 있어, 같은 32평이어도 노후도와 확장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특히 준공 20년 안팎 단지는 배관·창호 상태가 세대마다 제각각이라, 겉으로 보이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 공정'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견적 차이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전 인테리어 업체 추천**을 받을 때도, 부른 금액보다 항목 구성과 현장 실측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 3장을 받았다면 총액부터 비교하지 말고, 하나의 표에 항목을 나란히 옮겨 적어 보세요. 어느 집이 무엇을 빼놓았는지, 어떤 자재 등급을 가정했는지가 그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란히 대조하면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아 시공 사례 · 푸르지오 하임

- 총액이 아니라 '공정별 단가'가 항목마다 적혀 있는가
- 철거·설비·폐기물·입주청소가 견적에 포함돼 있는가
- 자재의 제조사·모델·등급이 명시돼 있는가
- 추가금이 발생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하자보수 기간·범위와 A/S 연락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가장 싼 견적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견적을 고르는 편이 결국 덜 났습니다.”

무아인테리어는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라는 방향으로, 감추는 항목 없이 공정별로 나눈 견적을 지향합니다. 같은 32평이라도 덕의 노후 상태와 생활 동선은 저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비교는 결국 현장 실측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견적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현장 상담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숫자만 비교하던 견적서가, 우리 집에 맞는 계획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MU:A

INTERIOR

당신의 공간에,
무아를 담겠습니다.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

무료 상담 · 현장 실측 문의

@muadesign2025 · www.ttasum.com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 후 안내드립니다.

☎ 010-9447-7622